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 12

동향분석실

머 리 말

줄곧 하락세였던 금리는 2019년 들어 더욱 하락하여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금리하락은 장기 부채와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수년간 보험산업은 금리하락과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보장성보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8년 2.7% 감소하였는데,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2.5%, 2.2%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9년 3.8%에서 2020년 2.6%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초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도입 예정된 IFRS 17, K-ICS로 인하여 보험산업의 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적 환경변화에 의한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경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최근 보험산업의 경영환경과 동향을 점검하고, 2020년 수입보험료 전망 및 경영·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본 보고서가 보험산업의 경영과 당국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안 철 경

■ 목차

요약 / 1

I. 경제·금융 환경 / 3

1. 세계경제 / 3
2. 국내경제 / 4
3. 금융시장 / 7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 10

1. 해약 증가 / 10
2. 보험영업현금흐름 악화 / 11
3. 수익성 악화 / 14
4. 자본성증권 발행 및 이자비용 확대 / 16

III. 2020년 보험산업 전망 / 17

1. 보험산업 보험료 / 17
2. 생명보험 / 19
3. 손해보험 / 25
4. 보험권 퇴직연금 / 34

IV. 경영 및 정책과제 / 35

1. 진단 및 과제 도출 / 35
2. 세부과제 / 36

■ 표 차례

- 〈표 I-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 6
- 〈표 I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20
- 〈표 I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26
- 〈표 III-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27
- 〈표 III-4〉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30
- 〈표 III-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1
- 〈표 III-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3

■ 그림 차례

- 〈그림 I-1〉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 4
- 〈그림 I-2〉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 4
- 〈그림 I-3〉 세계 경기선행지수 / 4
- 〈그림 I-4〉 국내 민간소비 성장률 / 5
- 〈그림 I-5〉 국내 건설투자 성장률 / 5
- 〈그림 I-6〉 국내 설비투자 성장률 / 5
- 〈그림 I-7〉 국내 재화 수출입 성장률 / 5
- 〈그림 I-8〉 국내 물가상승률 / 5
- 〈그림 I-9〉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 7
- 〈그림 I-10〉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국채 10년) 전망 / 7
- 〈그림 I-11〉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 8
- 〈그림 I-12〉 물가, 경제성장률 및 금리 추이 / 8
- 〈그림 I-1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 9
- 〈그림 I-14〉 주가지수 추이 / 9
- 〈그림 I-15〉 원/달러 환율 추이 / 9
- 〈그림 II-1〉 가계의 부채부담과 해지율 / 10
- 〈그림 II-2〉 보험종목별 신해지율 / 10
- 〈그림 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11
- 〈그림 II-4〉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 11
- 〈그림 II-5〉 생명보험 사업비 / 11
- 〈그림 II-6〉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 11
- 〈그림 II-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12
- 〈그림 II-8〉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 12
- 〈그림 II-9〉 손해보험 사업비 / 12
- 〈그림 II-10〉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 12
- 〈그림 II-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및 책임준비금 / 13
- 〈그림 II-12〉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 13
- 〈그림 II-13〉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 14

■ 그림 차례

- 〈그림 II-1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 14
- 〈그림 II-1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 14
- 〈그림 II-16〉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 14
- 〈그림 II-17〉 보험산업 ROA / 15
- 〈그림 II-18〉 보험산업 ROE / 15
- 〈그림 II-19〉 생명보험 ROA / 16
- 〈그림 II-20〉 생명보험 ROE / 16
- 〈그림 II-21〉 손해보험 ROA / 16
- 〈그림 II-22〉 손해보험 ROE / 16
- 〈그림 II-23〉 생명보험 후순위채 / 16
- 〈그림 II-24〉 생명보험 신종자본증권 / 16
- 〈그림 III-1〉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 전망 / 17
- 〈그림 III-2〉 보험산업 보험료 규모 전망 / 17
- 〈그림 III-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 18
- 〈그림 I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 19
- 〈그림 III-5〉 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가율 / 21
- 〈그림 III-6〉 종목별 계속보험료 증가율 / 21
- 〈그림 III-7〉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22
- 〈그림 III-8〉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 22
- 〈그림 III-9〉 보장성보험 계속보험료 전망 / 22
- 〈그림 III-10〉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23
- 〈그림 III-11〉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 23
- 〈그림 III-12〉 일반저축성보험 계속보험료 전망 / 23
- 〈그림 III-13〉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24
- 〈그림 III-14〉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 24
- 〈그림 III-15〉 변액저축성보험 계속보험료 전망 / 24
- 〈그림 III-16〉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 / 24
- 〈그림 III-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 25

■ 그림 차례

- 〈그림 Ⅲ-18〉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28
- 〈그림 Ⅲ-19〉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 28
- 〈그림 Ⅲ-20〉 장기손해보험 계속보험료 전망 / 28
- 〈그림 Ⅲ-21〉 장기 상해·질병 원수보험료 전망 / 28
- 〈그림 Ⅲ-22〉 장기 상해·질병 초회보험료 전망 / 28
- 〈그림 Ⅲ-23〉 장기 상해·질병 계속보험료 전망 / 28
- 〈그림 Ⅲ-24〉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원수보험료 전망 / 29
- 〈그림 Ⅲ-25〉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초회보험료 전망 / 29
- 〈그림 Ⅲ-26〉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계속보험료 전망 / 29
- 〈그림 Ⅲ-27〉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 / 29
- 〈그림 Ⅲ-28〉 장기 저축성 초회보험료 전망 / 29
- 〈그림 Ⅲ-29〉 장기 저축성 계속보험료 전망 / 29
- 〈그림 Ⅲ-30〉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30
- 〈그림 Ⅲ-31〉 개인연금 초회보험료 전망 / 30
- 〈그림 Ⅲ-32〉 개인연금 계속보험료 전망 / 30
- 〈그림 Ⅲ-33〉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 32
- 〈그림 Ⅲ-34〉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 32
- 〈그림 Ⅲ-35〉 채널별 판매비중 / 32
- 〈그림 Ⅲ-3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3
- 〈그림 Ⅲ-37〉 건설 및 설비투자 전망 / 33
- 〈그림 Ⅲ-38〉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 34
- 〈그림 Ⅲ-39〉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 34
- 〈그림 IV-1〉 보험산업의 현황과 과제 / 36
- 〈그림 IV-2〉 보장성보험 경쟁 심화와 위험 / 37
- 〈그림 IV-3〉 보험상품 개발 시 고려사항 / 37
- 〈그림 IV-4〉 소비자 니즈 변화를 고려한 상품 개발 / 38
- 〈그림 IV-5〉 설계사 유형별 추이 / 39
- 〈그림 IV-6〉 점포 수 추이 / 39

■ 그림 차례

〈그림 IV-7〉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 확립 / 40

〈그림 IV-8〉 부채 관리의 해외 사례 / 41

〈그림 IV-9〉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43

〈그림 IV-10〉 보험회사의 민원 유형별 비중 / 44

〈그림 IV-11〉 생명보험설계사 근속연수별 비중 / 44

〈그림 IV-12〉 자율민원조정기구 현황 / 45

〈그림 IV-13〉 손해사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 46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Agenda in 2020

Global trade and industrial production have been on the decline since 2018. In the domestic economy, private demand and exports are slowing down. Long-term interest rates,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are also expected to remain at below 2% due to the economic slowdown.

Considering the un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we forecast premium income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 insurance industry's premium growth rate in 2020 is expected to be at 0.0%. Premium income of 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decline 2.2% year on year (hereafter YoY) due to a slowdown in the growth of protection-type insurance and a decline in new sales of savings-type insurance. Protection-type insurance is expected to grow only 2.4% YoY due to the maturity of the life insurance market and increased termination. Savings-type insurance is expected to decline by 8.4% YoY due to lower disclosed interest rates, increased capital burden resulting from the scheduled introduction of IFRS 17 and K-ICS, and reduced sales of variable insurance due to increased volatility in stock prices.

Direct premiums written by non-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grow only by 2.6% YoY due to the sluggish sales in long-term savings-type insurance and pensions despite a slight recovery in auto insurance sales. Long-term non-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grow 3.4% YoY on slowing growth of long-term injury and disease insurance and a decline in savings-type insurance. Auto insurance is expected to grow 0.9% YoY due to a slowdown in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s, a reduction in discounts, and an increase in online sales. General non-life insurance is expected to increase only 2.8% due to shrinking investment.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changing structurally.

The expansion of protectionism and the aging population may slow economic growth and fix ultra-low interest rates. Also, the burden of capital on the insurance industry is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the accounting system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and the insurer needs to strengthen customer management due to the policy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The slowdown in the growth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mainly du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so Korean insurers need to avoid unreasonable strategies to enhance growth and implement mid- to long-term management to improve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oundness.

요약

세계경제는 2018년부터 무역과 산업생산이 감소세이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국면이다. 국내경제도 민간소비, 투자 등 민간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감소세로 경기 둔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기 금리 역시 경기 둔화 기조로 1%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경우 무역 및 생산 증가와 투자 확대가 일어나 2020년 경제성장률과 장기 금리가 예상보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보험산업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의 처분소득 감소 및 부채부담 증가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감소와 함께 지급보험금 증가로 인해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산업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및 경쟁 심화에 의한 사업비 지출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보험산업의 주요 동향을 반영하여 수입보험료를 전망하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2020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0.0%로,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 성장률은 -2.2%로 4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된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이율 인하와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소극적인 판매 전략 등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가 예상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판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4% 감소가 전망된다.

손해보험 성장률은 2.6%로 전년에 비하여 둔화(1.2%p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질병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로 전년 대비 3.4%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 할인특약 축소,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며,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경기 둔화와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인구고령화 심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초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춘 회계제도의 변화로 보험산업의 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으로 보험회사는 고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므로 보험회사는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리한 외형확대 전략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가치 경영을 실행해야 한다.

I. 경제·금융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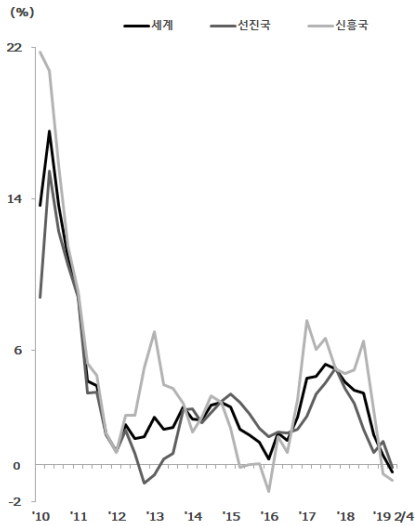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2018년부터 무역과 산업생산이 감소세이며, 경기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국면임
 - 무역과 산업생산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해 감소세를 보임
-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인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세계경제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글로벌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무역 위축 및 공급망 중단 위험, 제조업 부진에 따른 고용 감소 및 소비 둔화 가능성이 있음
 - 이외에도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물가상승 압력 하락에 따른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 등이 있음
- 주요 기관들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OECD는 최근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0.3%p 하향 조정하여 2.9%로 발표함¹⁾
 - IMF는 기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여 3.0%로 제시함²⁾

1) OECD(2019. 9),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 IMF(2019. 10),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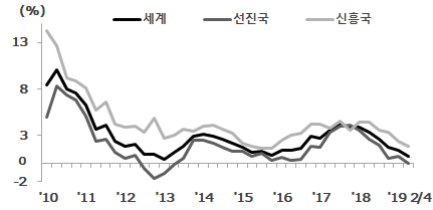
〈그림 I-1〉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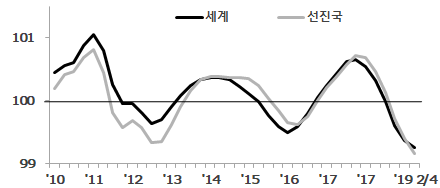
〈그림 I-2〉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그림 I-3〉 세계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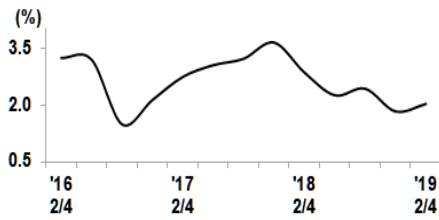
자료: OECD

2. 국내경제

■ 국내 민간소비, 투자 등 민간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 또한 감소세로 경기 둔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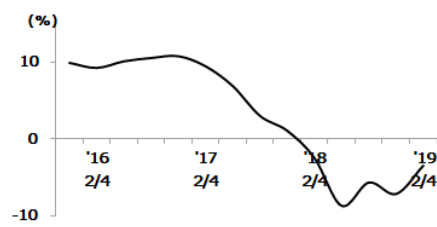
- 2017년 이후 소비, 투자가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음
- 2019년 2/4분기 민간소비, 투자 및 수출 증가율이 소폭 반등하였으나, 상승세로 전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가중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민간 수요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I-4〉 국내 민간소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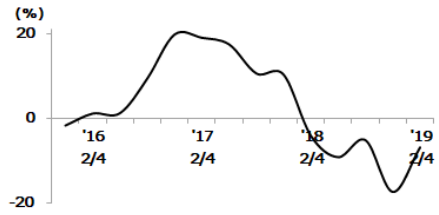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5〉 국내 건설투자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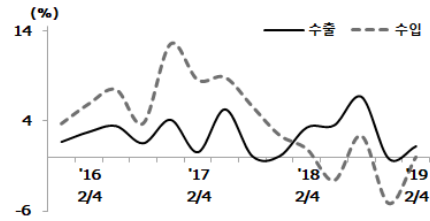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6〉 국내 설비투자 성장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7〉 국내 재화 수출입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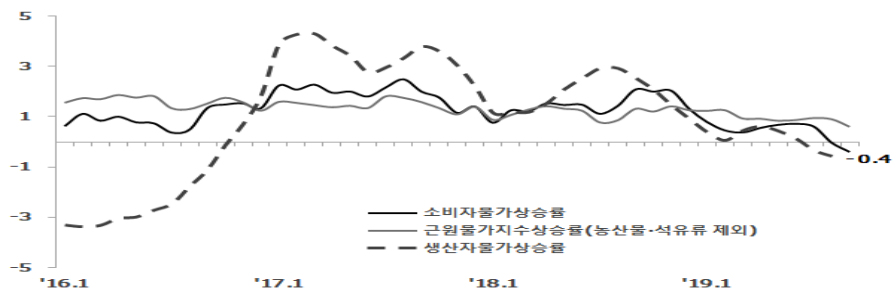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9월 -0.4%를 기록하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민간 수요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림 I-8〉 국내 물가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 국내 주요 기관은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9년보다 높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각각 7월과 5월에 2020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함
- 향후 미·중 무역분쟁 및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부진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임

〈표 I-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F) ¹⁾		2020(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3.1	2.7	2.2	2.4	2.5	2.5
민간소비	2.6	2.8	2.3	2.2	2.4	2.4
설비투자	14.6	-1.6	-5.5	-4.8	3.4	3.5
건설투자	7.6	-4.0	-3.3	-4.3	-1.6	-3.1
지식생산물투자	3.0	1.9	2.6	2.6	2.9	2.8
상품수출	3.8	4.0	0.6	1.1	2.4	4.2
상품수입	7.4	1.9	-0.5	-1.6	2.4	3.0
실업률	3.7	3.8	3.9	3.9	3.8	3.8
소비자물가	1.9	1.5	0.7	0.7	1.3	1.3
경상수지	752	764	590	582	585	559
상품수지	1,136	1,119	875	859	895	802
서비스·본원 이전소득수지	-384	-355	-285	-277	-310	-243

주: 1) 2019(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19. 7),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19. 5), 『KDI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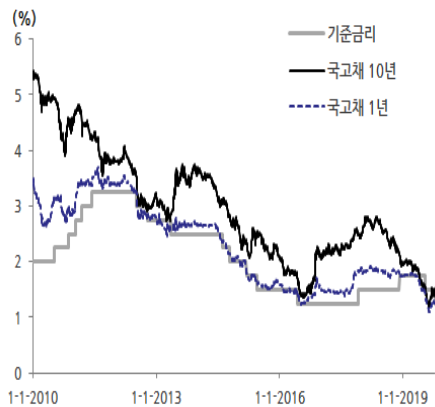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 금융시장

가.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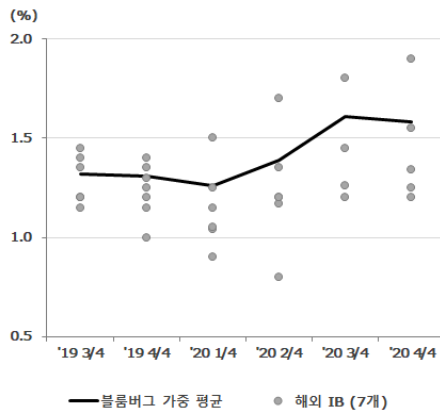
- 시장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이며 2018년부터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으로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형성됨
 -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둔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이유로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
-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2020년 우리나라 국채(10년)금리가 2019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금리 상승요인으로는 미·중 무역갈등 및 불확실성 해소 등이 있고, 하락요인으로는 불확실성 심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 확대 등이 있음

〈그림 I-9〉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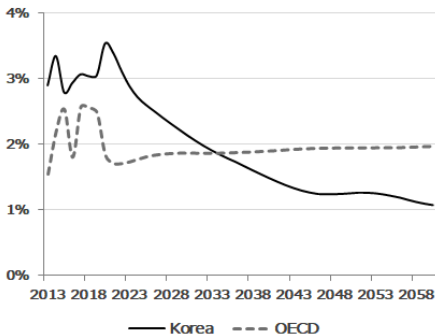
〈그림 I-10〉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국채 10년) 전망



주: 국채(10년) 금리, 2019년 9월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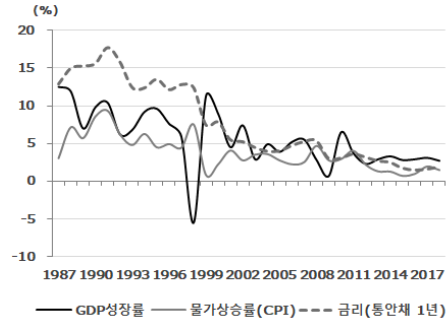
-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인구고령화에 의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장기 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 환경이 조기에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의한 대외여건 악화가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대외여건 악화의 부정적 영향이 큼
 - 대외여건의 악화가 없더라도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에 의한 생산성 둔화로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는 명목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임

〈그림 I-11〉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OECD

〈그림 I-12〉 물가, 경제성장률 및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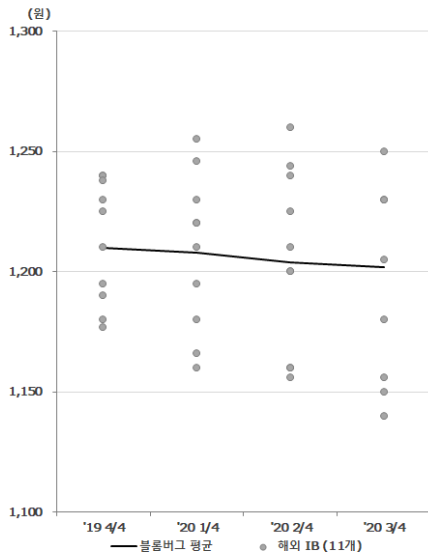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나. 주가 및 환율

- 미·중 무역분쟁 심화, 한·일 갈등 장기화 등으로 인해 2020년 국내 주가는 2019년 보다 소폭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임
 - 실물경기 둔화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KOSPI가 2018년부터 하락세임
 - 주식시장의 침체는 변액보험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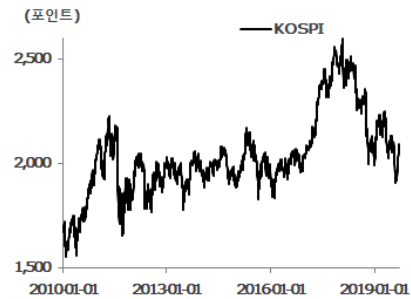
- 2019년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투자은행들은 2020년 원/달러 환율이 2019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환율 상승 및 주가 하락 요인으로는 불확실성 확대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 상승, 수출 감소세 확대 등이 있음
 - 환율 하락 및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무역갈등과 같은 불확실성 해소 등이 있음

〈그림 I-1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주: 2019년 9월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I-14〉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I-15〉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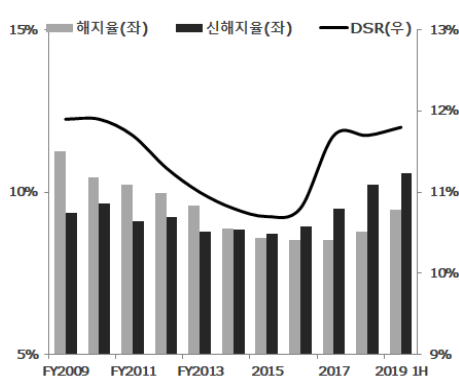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해약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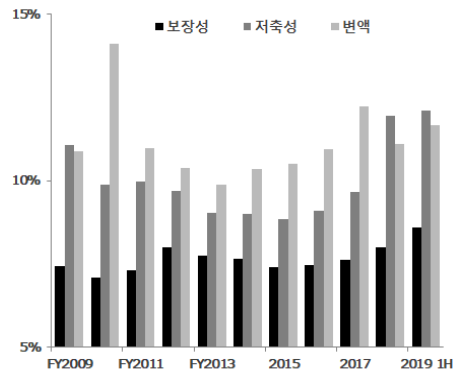
■ 가계의 부채부담이 2014년 이후 확대되면서 6년간 수입보험료 대비 환급금 비율(신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최근에는 보장성보험의 해약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그림 II-1〉 가계의 부채부담과 해지율



〈그림 II-2〉 보험종목별 신해지율



주: 1) 신해지율은 환급금을 당해년도 포함 6년간 수입보험료의 합으로 나눈 값

2) DSR은 2019년 3월이 최종수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BIS Statistics

주: 환급금 기준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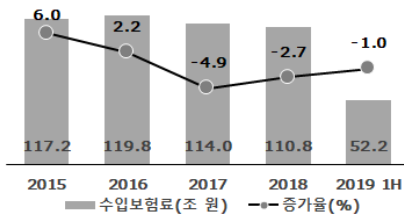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험영업현금흐름 악화

가.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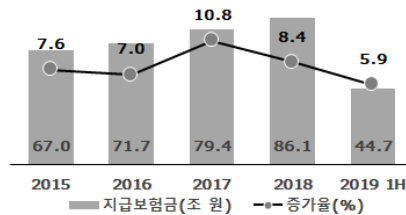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보험금-사업비)은 2019년 상반기 급감하여 적자(-427억 원)로 전환됨
-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고 있는 점이 보험영업현금흐름 적자의 주된 요인임

〈그림 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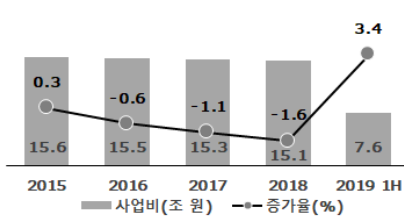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4〉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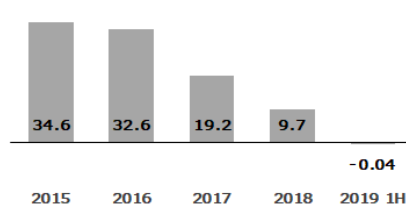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5〉 생명보험 사업비



주: 1) 2019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2) 사업비는 이연전사업비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6〉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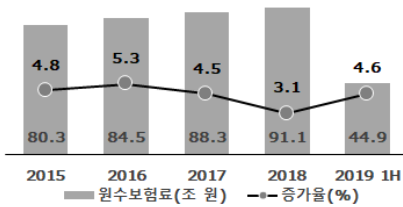
주: 1) 2019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2) 보험영업현금흐름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발생손해액-사업비)은 2018년부터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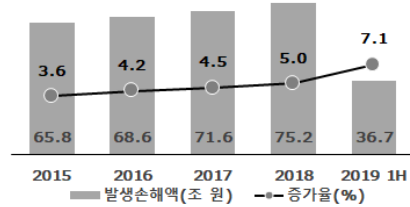
-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둔화세인 가운데,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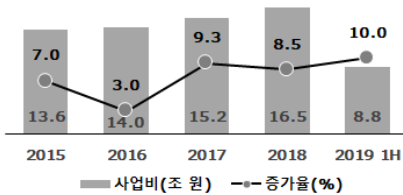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8〉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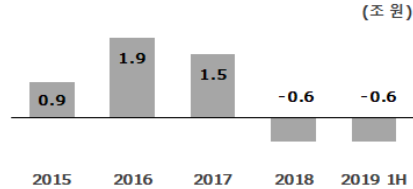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9〉 손해보험 사업비



주: 1) 2019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2) 사업비는 이연전사업비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0〉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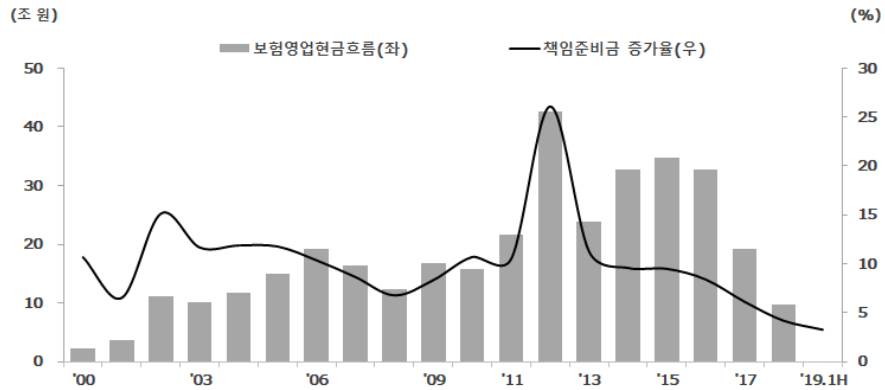
주: 1) 2019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2) 보험영업현금흐름 = 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사업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책임준비금 성장 둔화

■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책임준비금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적자일 경우 보험영업 부문이 책임준비금(혹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9년 상반기 적자(-400억 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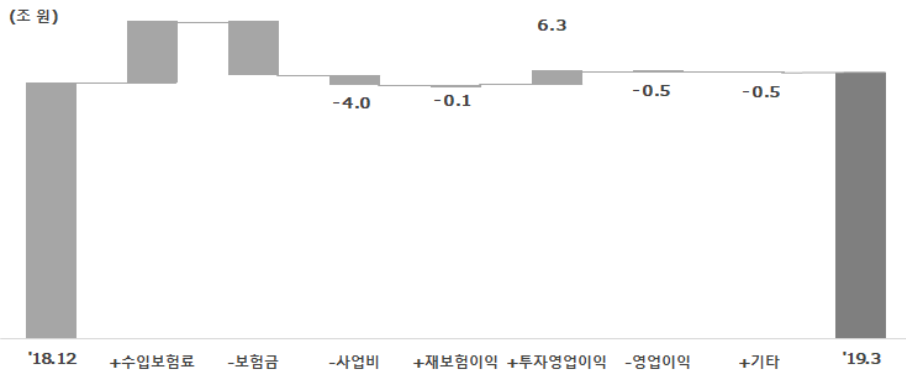
- 보험영업현금흐름과 책임준비금 증가율 간 상관관계는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더 높은 생명보험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
- 보험영업현금흐름 악화는 유동성 관리와 자산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림 II-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및 책임준비금



주: 1)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순사업비
 2) 2019년 상반기 증가율은 연율화함
 자료: 보험개발원, 금융통계시스템

〈그림 II-12〉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주: 책임준비금 변화 = [(수입보험료-보험금-사업비)+(재보험수익-재보험비용)+투자영업이익-영업이익]+기타
 자료: 보험연구원(2019), 『보험동향 2019년 여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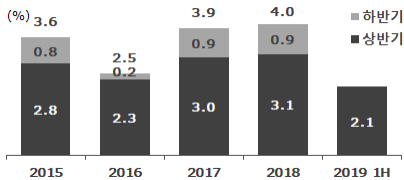
3. 수익성 악화

가. 당기순이익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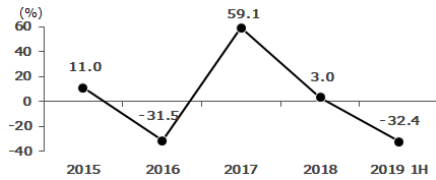
- 생명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연말 LAT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증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당기순이익 감소가 예상됨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 및 사업비 지출 확대로 보험영업손실이 확대됨

〈그림 II-13〉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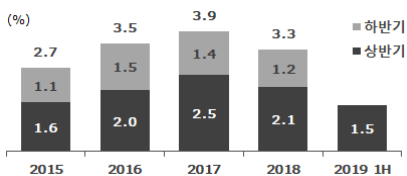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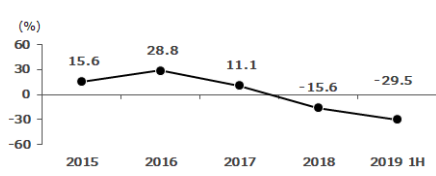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6〉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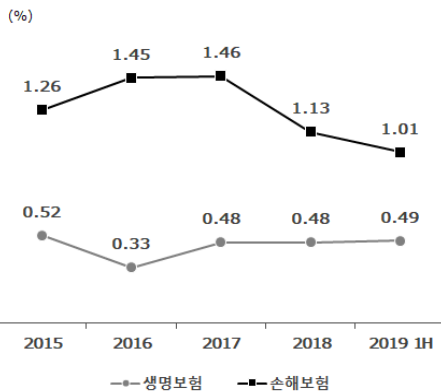


주: 2019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ROA,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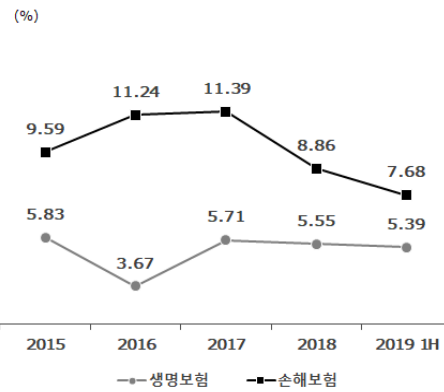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ROA와 ROE 또한 감소하여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수익성 악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 사업비 지출 확대 등이 요인임

〈그림 II-17〉 보험산업 ROA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18〉 보험산업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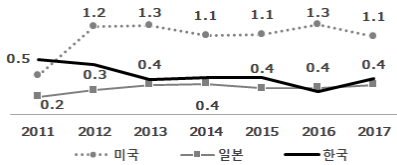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해외 비교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최근에 비해 수익성이 양호했던 기간(2011~2017년)에도 미국 및 일본 보험회사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달성했던 것은 아님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 의한 배당성향도 미국이나 일본 보험회사 혹은 국내 타 금융업권에 비해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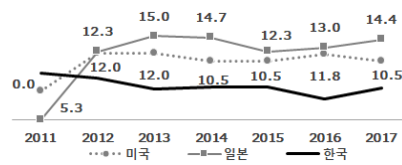
-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의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19〉 생명보험 R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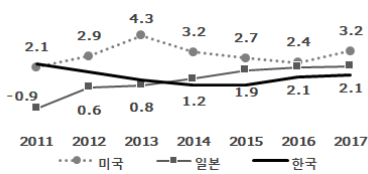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 II-20〉 생명보험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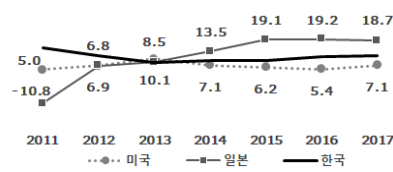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 II-21〉 손해보험 ROA



자료: OECD

〈그림 II-22〉 손해보험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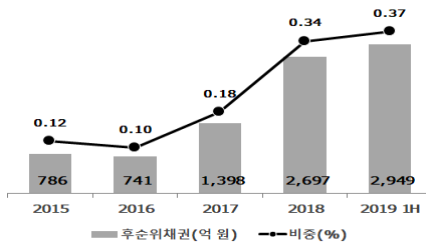


자료: OECD

4. 자본성증권 발행 및 이자비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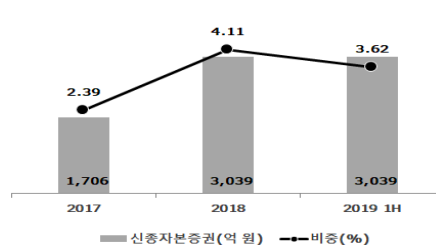
- 금리하락과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대응으로 보험회사들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확대됨
 - 후순위채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0.12%에서 2019년 상반기 0.37%로 확대됨
 - 자본성증권 발행금리가 운용자산이익률에 비해 낮아 금리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II-23〉 생명보험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24〉 생명보험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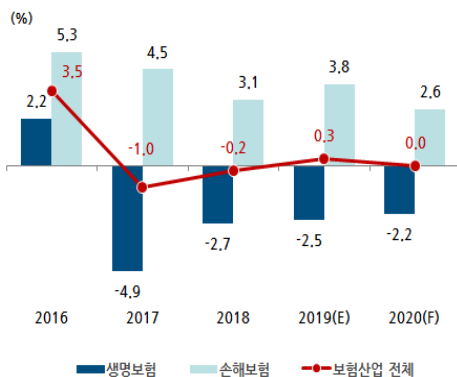
Ⅲ. 2020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가. 수입(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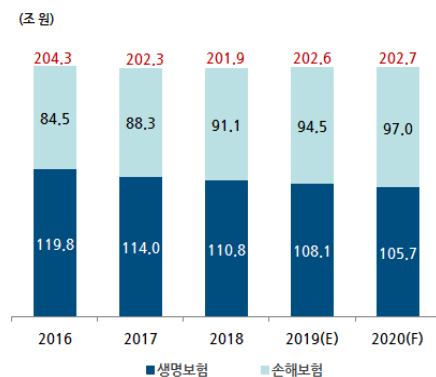
-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9년 0.3%, 2020년 0.0%로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9년 -2.5%, 2020년 -2.2%로 4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9년 3.8%, 2020년 2.6%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Ⅲ-1〉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 전망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2〉 보험산업 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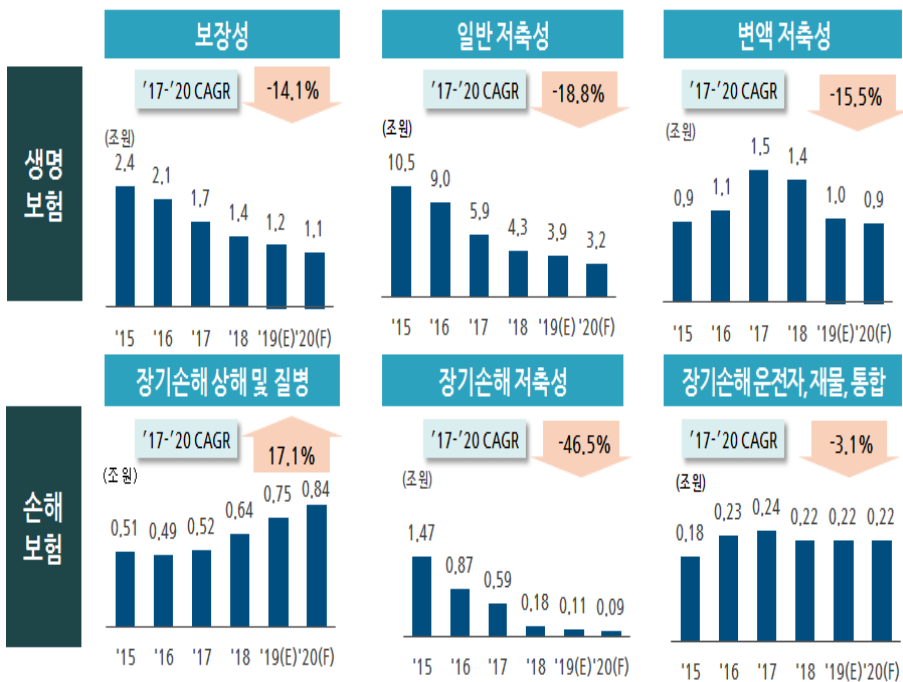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초회보험료

■ 초회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의 초회보험료가 역성장하고 있음

- 특히, 생명보험의 일반저축성보험(CAGR³⁾ -18.8%과 손해보험의 장기 저축성보험(CAGR -46.5%)의 감소세가 크게 나타남
- 다만, 손해보험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증가세(CAGR 17.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I-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주: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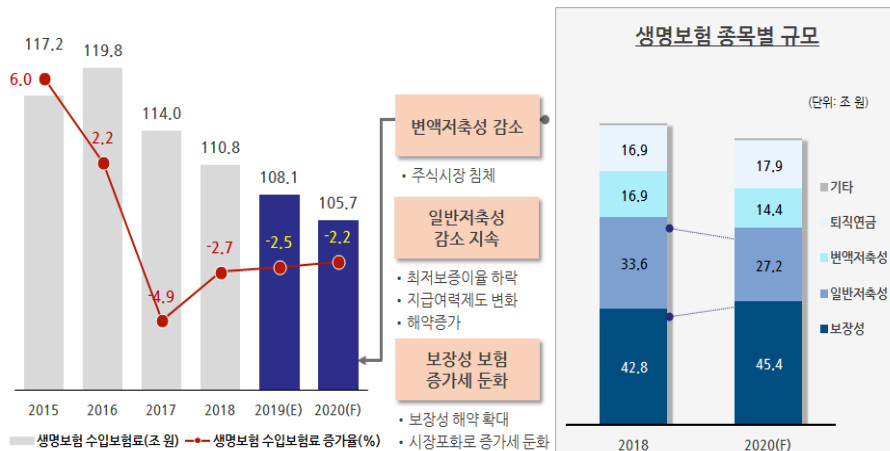
3) CAGR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임

2. 생명보험

가. 개요

-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2.2%가 전망되며, 4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보임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시장의 포화,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이율 인하와 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소극적인 판매 전략 등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가 예상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 마케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로 인해 전년 대비 5.4% 감소할 전망이다
 -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9년 전년 대비 3.7%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주: '19(E)와 '20(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I-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E) ¹⁾		2020(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39,735	-4.9	1,108,431	-2.7	1,080,771	-2.5	1,056,534	-2.2
(퇴직연금 제외)	990,671	-3.9	939,706	-5.1	905,189	-3.7	877,558	-3.1
보장성보험 ²⁾	417,592	3.6	427,858	2.5	443,457	3.6	453,902	2.4
저축성보험 ³⁾	565,430	-8.9	504,233	-10.8	454,031	-10.0	415,920	-8.4
일반저축성	387,903	-12.4	335,669	-13.5	301,772	-10.1	271,952	-9.9
변액저축성	177,526	-0.1	168,563	-5.0	152,259	-9.7	143,968	-5.4
퇴직연금	149,064	-10.9	168,725	13.2	175,582	4.1	178,976	1.9
기타 ⁴⁾	7,649	0.4	7,616	-0.4	7,701	1.1	7,735	0.4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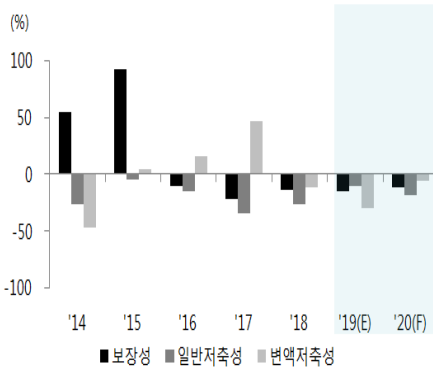
■ 생명보험 대부분 종목의 초회보험료가 2016년부터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그림 III-5〉 참조)

- 시장의 성숙, 저금리, 경기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음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판매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초회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음

■ 계속보험료 증가율을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은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III-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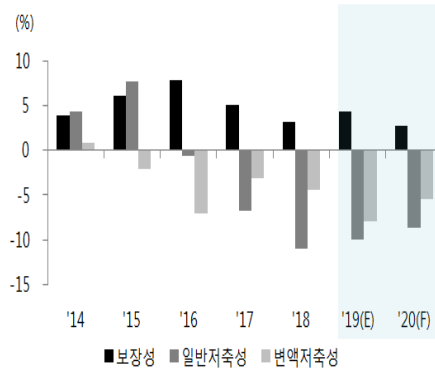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계속보험료 증가율은 신규 판매 확대가 어려운 가운데 해지율도 상승하고 있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 계속보험료도 초회보험료 감소세 지속과 해지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그림 III-5〉 종목별 초회보험료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6〉 종목별 계속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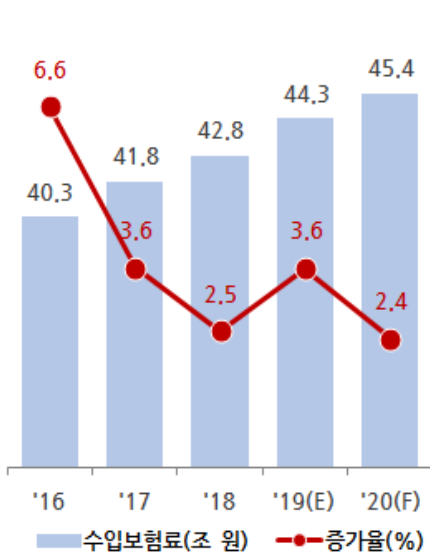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⁴⁾

- 2020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시장의 성숙, 요율경쟁 심화, 경기부진으로 인한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종신보험 시장의 성숙, 기대여명 상승,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망보험의 신규 수요 창출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기 둔화 및 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인하여 보장성보험의 해약(해지)도 증가 추세를 보임
 - 다만,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전략은 지속될 것임
 -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증진형 보험 등 다양한 중·저가 건강보험 개발 확대가 예상되나 건강보험의 요율경쟁 심화와 저렴한 보험료 수준으로 인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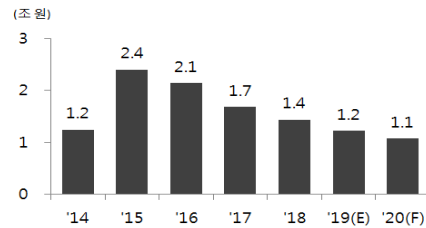
4)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그림 III-7〉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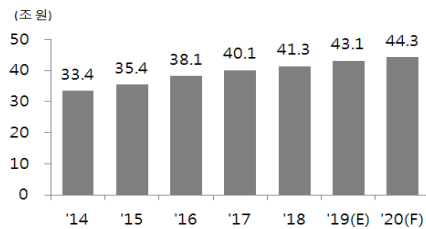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8〉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9〉 보장성보험 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일반저축성보험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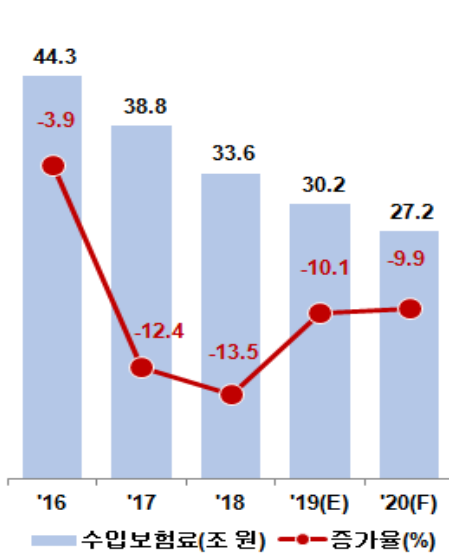
■ 2020년 일반저축성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에 대비한 소극적 판매 전략과 저금리로 인한 보증이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가 전망됨

- 생명보험회사들은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소극적인 일반저축성보험 판매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보증이율 하락은 일반저축성보험 수요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한편,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일반저축성보험의 해약(해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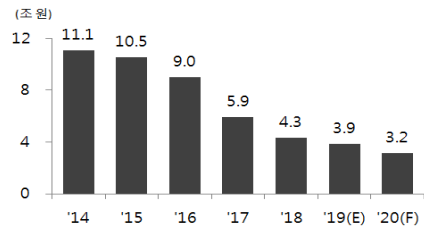
5)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 다만, 빠른 고령화 추세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기가 도래한 저축성보험의 재가입 수요도 확대될 수 있음

〈그림 III-10〉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그림 III-11〉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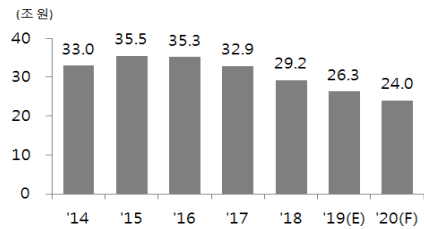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2〉 일반저축성보험 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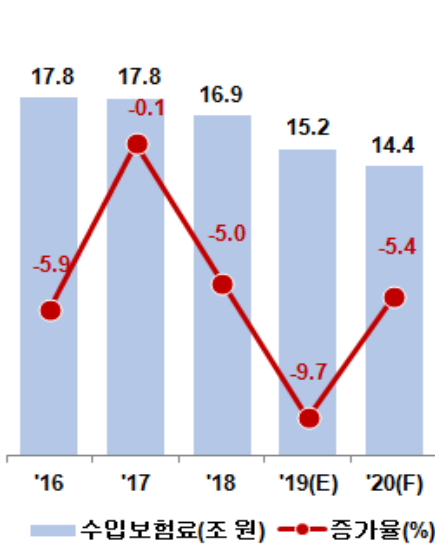
라. 변액저축성보험⁶⁾

- 2020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가 전망됨
 - 미·중 무역분쟁 확대, 한·일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빠른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의한 변액저축성보험의 해지 확대 추세가 수입보험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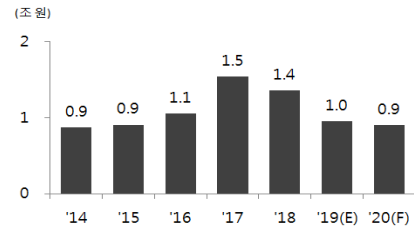
6) 변액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 다만, 변액저축성보험은 IFRS 17 도입 시 자본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계속될 것임

〈그림 III-13〉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그림 III-14〉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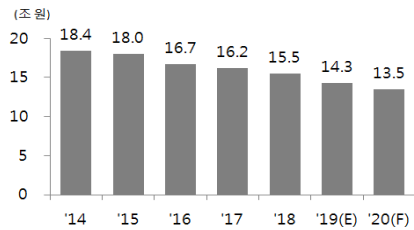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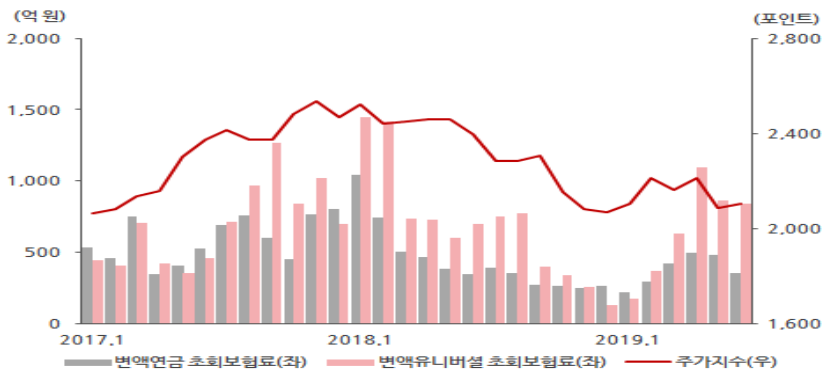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5〉 변액저축성보험 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6〉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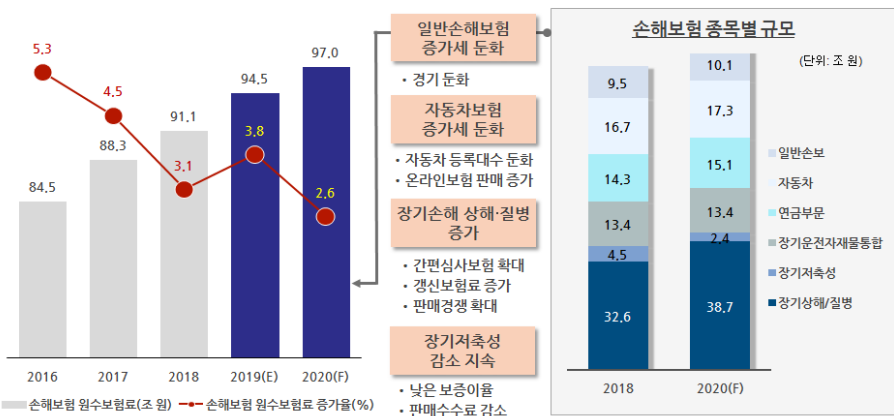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3. 손해보험

가. 개요

- 2020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의 감소세도 계속되어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재물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로 전년 대비 3.4% 증가할 전망이다
 - 개인연금은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 할인특약 축소와 같은 증가요인과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 등과 같은 감소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다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경기 둔화와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2.8% 증가에 그칠 것임
 -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9년 3.4%, 2020년 2.5%로 0.9%p 하락할 전망이다

〈그림 III-17〉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I-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7		2018		2019(E)		2020(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88.3	4.5	91.1	3.1	94.5	3.8	97.0	2.6
(퇴직연금 제외 시)	78.6	2.6	80.3	2.2	83.0	3.4	85.0	2.5
장기손해보험	49.1	2.8	50.6	3.0	52.7	4.2	54.5	3.4
개인연금	3.7	-4.5	3.5	-5.0	3.3	-5.8	3.1	-5.1
퇴직연금	9.8	23.1	10.8	10.2	11.5	6.9	12.0	3.9
자동차보험	16.9	2.8	16.7	-0.8	17.1	2.4	17.3	0.9
일반손해보험	8.9	4.8	9.5	6.3	9.8	3.8	10.1	2.8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손해보험

- 2020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장기 저축성보험의 감소세는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장기 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의 판매 증가,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갱신주기 도래, 판매 경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가 예상됨

- 다만, 높은 실손의료보험 가입률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 우려, 국민건강보험 정책 변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 등으로 인하여 성장세가 전년(10.1%)에 비하여 둔화될 것임

- 장기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할인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가 예상됨

- 장기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관련 보장의 다양화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율이 하락이 성장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재물보험은 실손보상 및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확대와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임
- 장기 통합형보험은 높은 보험료 부담과 상품구성의 경직성 등이 수요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저축성보험은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 정책이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27.6% 감소가 예상됨
 - IFRS 17 최저보증이율로 인한 금리리스크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따른 자본 부담 등이 신규 판매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한편, 한국은행은 2019년 10월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기준에 비하여 0.25%p 인하하였으며, 저금리 고착화에 대한 우려 확대로 장기 저축성보험 판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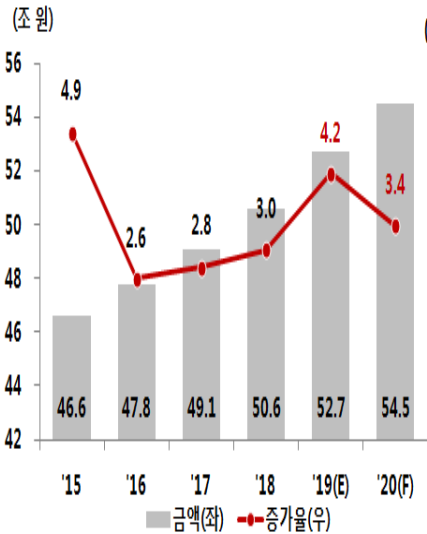
〈표 III-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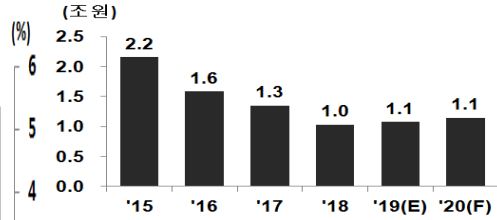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E)		2020(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49.1	2.8	50.6	3.0	52.7	4.2	54.5	3.4
상해 및 질병	29.7	9.2	32.6	10.0	35.9	10.1	38.7	7.7
저축성보험	6.3	-23.3	4.5	-28.8	3.3	-25.9	2.4	-27.6
운전자·재물 등	13.1	5.9	13.4	2.5	13.5	0.1	13.4	-0.3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8〉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III-19〉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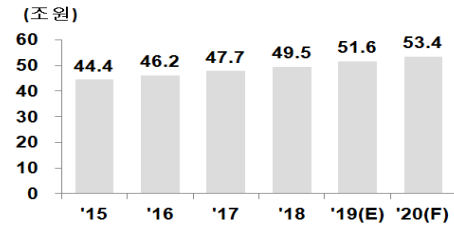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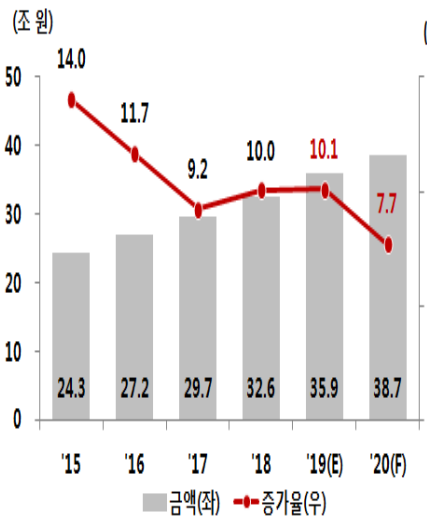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0〉 장기손해보험 계속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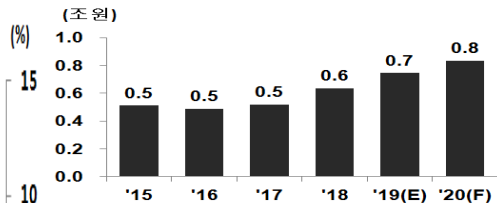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1〉 장기 상해·질병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III-22〉 장기 상해·질병 초회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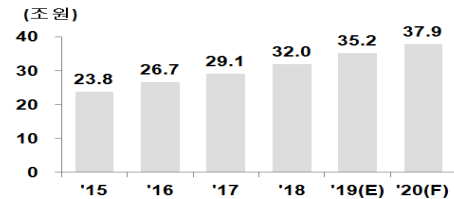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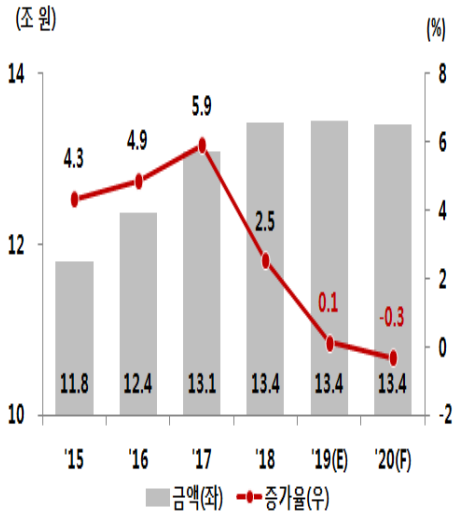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3〉 장기 상해·질병 계속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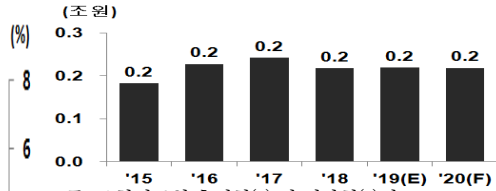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4〉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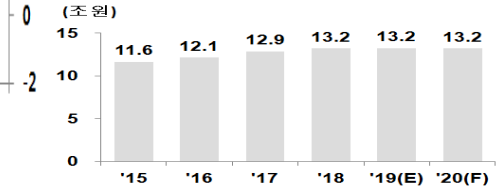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5〉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초회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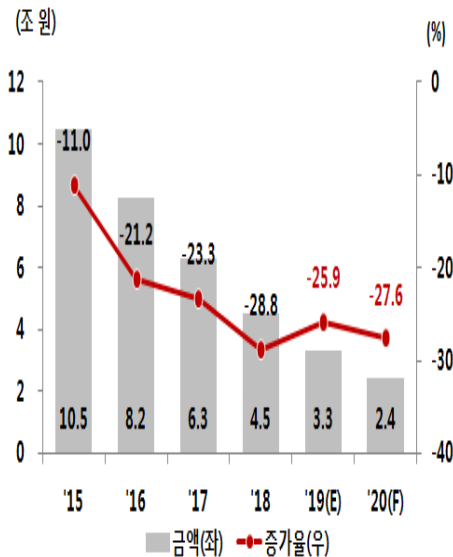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6〉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계속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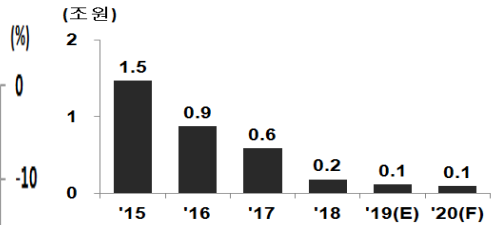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7〉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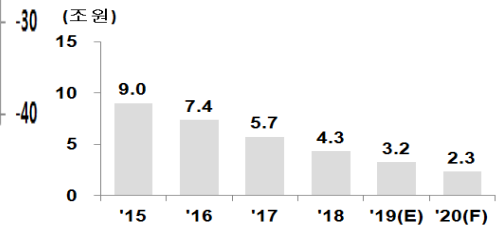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8〉 장기 저축성 초회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29〉 장기 저축성 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개인연금

- 2020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노후소득 보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1% 감소할 전망이다
- 저금리 장기화로 인하여 수익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세제혜택 축소로 상품 경쟁력도 약화되어 2014년부터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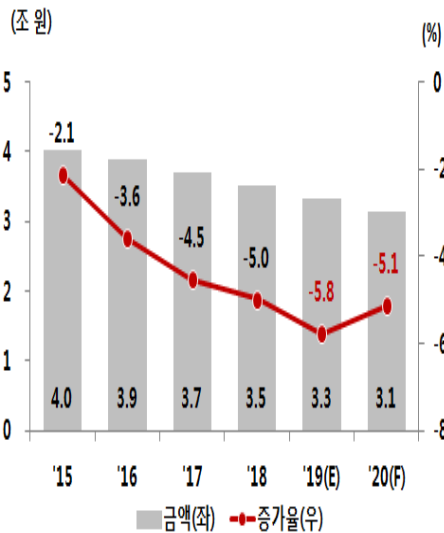
〈표 III-4〉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7		2018		2019(E)		2020(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3.7	-4.5	3.5	-5.0	3.3	-5.8	3.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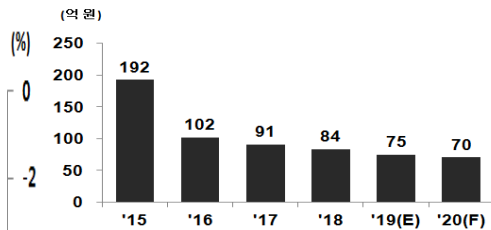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30〉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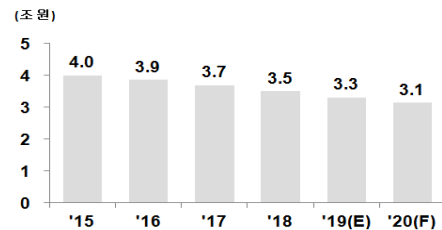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31〉 개인연금 초회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32〉 개인연금 계속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자동차보험

- 2020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 확대에 의하여 전년 대비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정비수가 인상, 이상기온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악화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2019년 상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함
 -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8년 -0.8%에서 2019년 2.4%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할인특약 축소 등의 증가요인과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 등의 감소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다
 - 다만,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일용임금 인상 등과 같은 보험원가 상승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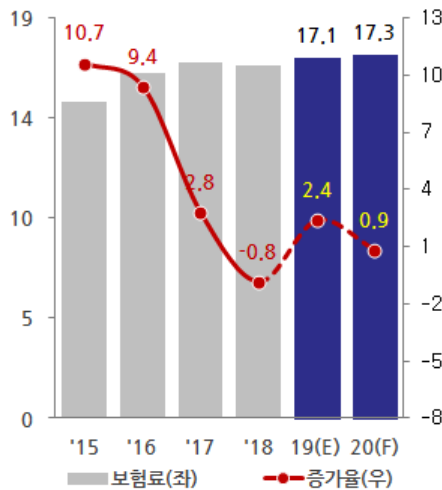
〈표 III-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7		2018		2019(E)		2020(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보험	16.9	2.8	16.7	-0.8	17.1	2.4	17.3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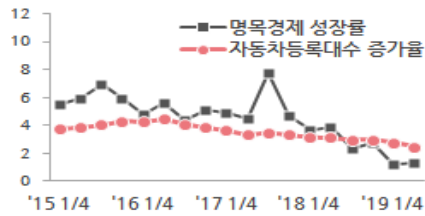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33〉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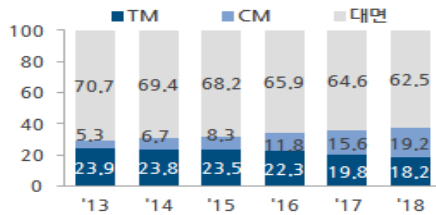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34〉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35〉 채널별 판매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일반손해보험

■ 2020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둔화, 낮은 손해율로 인한 요율 조정, 다른 보험종목으로의 수요 분산 추세가 계속되어 전년 대비 4.2% 감소가 전망됨
-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가 예상됨
- 보증보험은 그 동안 성장을 주도하였던 중금리대출 보증보험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건설경기 둔화와 기업구조조정 지속의 여파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전년 대비 1.9% 성장하는 데 그칠 것임
- 특종보험 증가율은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로 다른 대부분

종목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어 2019년 5.0%에서 2020년 3.7%로 둔화될 전망이다

- 승강기 배상책임보험과 사이버보험 등과 같은 의무보험 확대에 힘입어 배상책임보험 시장은 확대될 것임
- 그러나 무역감소 및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 기업성보험의 요율 할인 경쟁 심화 등의 요인은 특종보험 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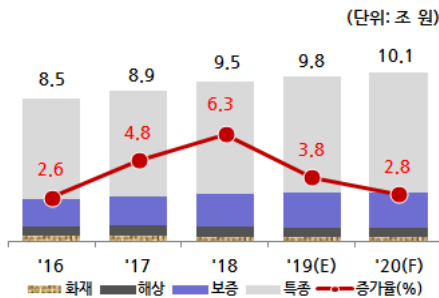
〈표 III-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7		2018		2019(E)		2020(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8.9	4.8	9.5	6.3	9.8	3.8	10.1	2.8
화재	0.3	-1.5	0.3	-7.2	0.3	-5.4	0.2	-4.2
해상	0.6	5.9	0.6	-7.6	0.6	-5.2	0.6	-1.7
보증	1.7	9.6	2.0	12.1	2.0	3.9	2.1	1.9
특종	6.2	3.7	6.7	6.8	7.0	5.0	7.2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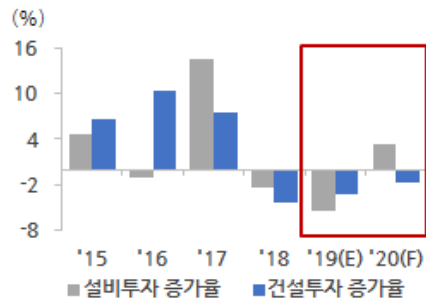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3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37〉 건설 및 설비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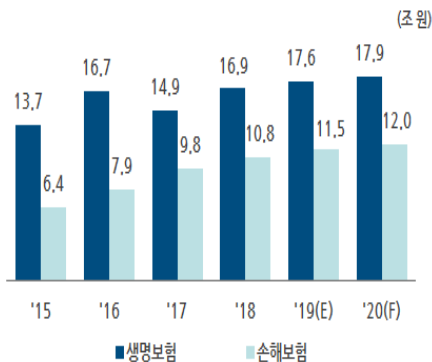


주: 한국은행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한국은행

4. 보험권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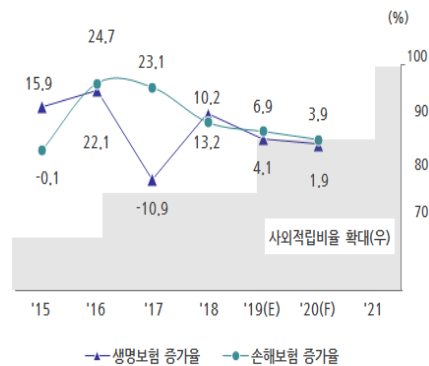
- 2020년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9%, 손해보험 퇴직연금 원수 보험료는 전년 대비 3.9% 증가가 전망됨
 - IRP(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계좌 세액 공제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임금상승률 상승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20년 1월부터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됨
 - DB형 사외적립비율은 2019년부터 80%에서 90%로, 2021년부터 90%에서 100%로 확대될 예정임
 - 다만,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대비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 확대와 타 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보험권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III-38〉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39〉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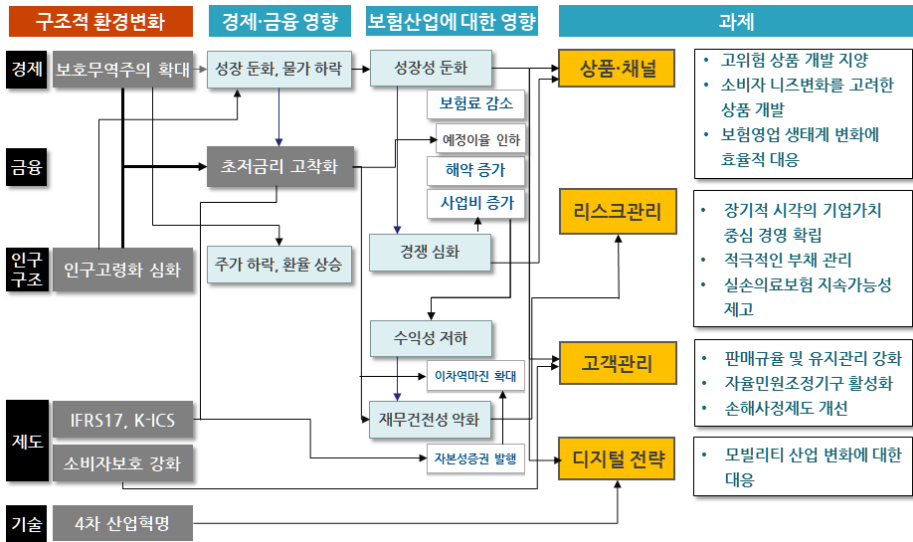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금융감독원

IV. 경영 및 정책과제

1. 진단 및 과제 도출

- 경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구조적 환경 변화에 중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인구고령화 심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초저금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기준에 맞춘 회계제도의 변화로 보험산업의 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으로 보험회사는 고객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므로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리한 외형확대 전략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 가치 경영이 필요함
- 본고에서는 상품·채널, 리스크관리, 고객관리, 디지털 전략의 4대 부문에서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영 및 정책 과제 열 가지를 제안함
 - [상품·채널] 고위험 상품 개발 지양, 소비자 니즈 변화를 고려한 상품 개발, 보험 영업 생태계 변화에 효율적 대응
 - [리스크관리] 장기적 시각의 기업가치 중심 경영 확립, 적극적인 부채 관리,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고객관리] 판매규율 및 유지관리 강화, 자율민원조정기구 활성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 [디지털 전략]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림 IV-1〉 보험산업의 현황과 과제



2. 세부과제

가. 고위험 상품 개발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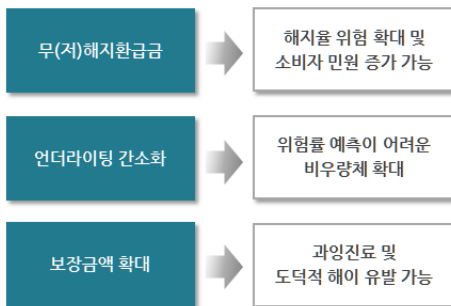
- 대다수 보험회사가 향후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저축성보험 공급을 줄이고 보장성보험을 확대하고 있음
- 보장성보험 경쟁 심화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간편심사보험, 보장금액을 확대한 보험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손해율이 악화되고 민원 발생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저금리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대응하여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경우 보험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판매 시 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간편심사보험 판매 확대로 위험률 예측이 어려운 비우량체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장금액 확대로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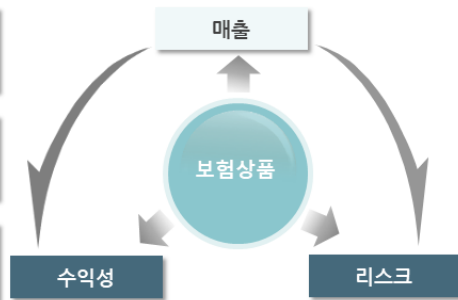
■ 리스크 중심의 제도 변화를 앞두고 이러한 매출확대 전략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수익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상품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함

〈그림 IV-2〉 보장성보험 경쟁 심화와 위험



〈그림 IV-3〉 보험상품 개발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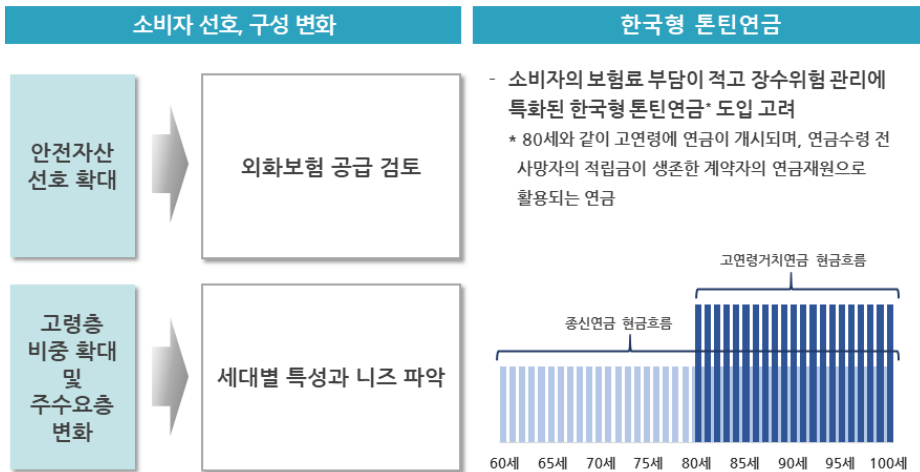


나. 소비자 니즈 변화를 고려한 상품 개발

■ 경제 환경, 인구고령화 등에 의한 소비자 선호 및 구성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저성장, 저금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확대에 대응하여 외화보험 공급을 검토할 수 있음
- 고령층 비중 확대 및 주수요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별 특성과 니즈 파악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장수위험 관리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의 예로 토티연금을 들 수 있음
 - 토티연금은 80세와 같이 고연령에 연금이 개시되며, 연금수령 전 사망자의 적립금이 생존한 계약자의 연금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로 보험료 부담이 적음

〈그림 IV-4〉 소비자 니즈 변화를 고려한 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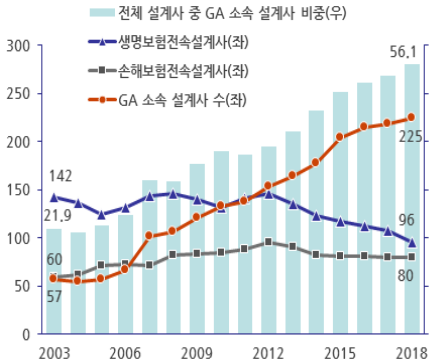


다. 보험영업 생태계 변화에 효율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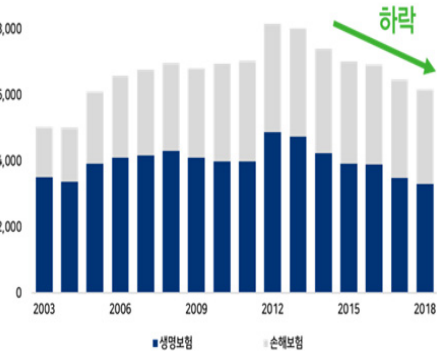
■ 보험영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판매채널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GA와 보험회사 간 균형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전속설계사 조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이후 GA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설계사의 이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고아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모집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GA와 보험회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GA 사업모형 도입 검토가 필요함
- 전속설계사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수당 및 수수료 체계를 손익 중심으로 운영하고, 설계사 조직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5〉 설계사 유형별 추이



〈그림 IV-6〉 점포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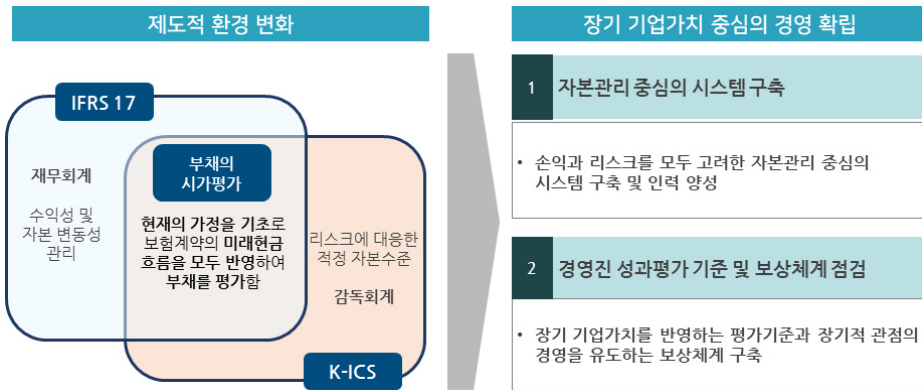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라. 장기적 시각의 기업가치 중심 경영 확립

- 외형 확대 전략을 탈피하여 장기적 시각의 기업가치 중심 경영을 확립해야 함
 - 초회보험료가 역성장하는 환경에서 매출확대에 치중하는 전략은 리스크 증가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구조적 환경 변화로 인한 부분이 크므로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무리한 외형확대 전략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 목표를 낮추고 내실을 강화하는 경영으로 전환해야 함
- 장기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경영자 성과평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가정을 기초로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을 모두 반영하여 부채와 수익성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측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장기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평가기준과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유도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함

〈그림 IV-7〉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 확립



마. 적극적인 부채 관리

- 저금리 및 IFRS 17 및 K-ICS에 대응하여 부채 구조 전환, 금리리스크 전가·헤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계약 이전, 계약 환매(Buy-Back) 방식으로 부채의 구조를 전환하고 재보험,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금리리스크를 전가하거나 헤지할 필요가 있음
 - 당국은 관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 이전과 관련하여 2018년 5월 이루어진 대만 알리안츠생명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⁷⁾
 - 대만 알리안츠생명은 대만 중국생명에 고금리(4% 이상) 보증 계약 78,000건(약 1조 3백억 원)을 이전하여 영업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함
 - 대만 중국생명은 시장점유율이 2.6%p 증가하여 두 회사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음
 - 계약자보호를 위해 계약자에게 신속히 사실을 고지하고, 서비스 지속을 약속하는 성명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함

7) 보험개발원(2019), 『굿바이, 고금리 계약-대만 보험계약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CEO Report

- 계약 환매와 관련해서는 벨기에 생명보험회사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⁸⁾
 - 환매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금 대비 10~25% 정도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제공함
 - 부동산 투자나 내구재 소비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제안을 하고,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됨
 - 벨기에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Ethias는 세 차례 환매로 고금리 보증 계약의 95%를 제거함

〈그림 IV-8〉 부채 관리의 해외 사례

계약이전	• 대만 알리안츠생명→대만 중국생명에 계약을 이전(18.5월) - 알리안츠 생명은 고금리 계약(4% 이상) 78,000건(약 1조 3백억 원)에 대해 계약을 이전하여 영업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함 - 중국생명은 시장 점유율이 2.6%p 증가하여 두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계약환매	•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 프리미엄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벨기에 보험사(AXA, Ethias)는 고금리 종신보증계약에 대해 계약을 환매함 - 10~25% 프리미엄을 지급(약 70억 유로)하여 부채를 축소하였음

바.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⁹⁾

-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대폭 상승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역선택, 도덕적 해이 유인 및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등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임
 -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수요자 간 위험편차와 정보 비대칭성이 크므로

8) 조영현·김유미(2019), 「벨기에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9)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정성희·문혜정(2019),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이슈보고서, 보험연구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높음

- 포괄 보장구조로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가입자 공동부담 고리’가 형성되기 쉬움
- 또한, 보유계약의 장기적 특성 및 실손보험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체계가 없어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의 정책적 지원을 들 수 있음

- 역선택 방지를 위해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포괄 보장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로 상품 구조를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계약전환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아울러 소비자 편의 및 신뢰 제고를 위해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송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IV-9〉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험요인	전략방안
보험료 차등제	- 가입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가중 - 개별 건강위험 및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 세분화에 한계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의료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상품 개선	- 포괄 보장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 이용·공급 통제 기능 미흡 -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도덕적 해이 유인 통제 필요	- 급여·비급여 상품 분리 운영 - 비급여 상품 자기부담금 확대·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제도	-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 인센티브 미흡 - 계약전환 시 해지·계약심사에 따른 계약전환 편의성 미흡	- 계약전환 인센티브 강화 - 계약전환 편의성·접근성 제고
청구절차 간소화	-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여 불편 - 소비자 편의 및 신뢰 저하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송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

사. 판매규율 및 유지관리 강화

-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로 불완전판매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소비자 체감도는 여전히 낮으며,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고아계약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신뢰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체 민원 중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판매자 중심에서 인바운드·컨설팅형 채널로 전환하고 소비자 중심의 유지관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고아계약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표준형·단기보험상품¹⁰⁾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주로 푸쉬형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자발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인바운드형

10)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애견보험, 여행자보험, 도난보험, EW, 휴대폰 분실·도난 보험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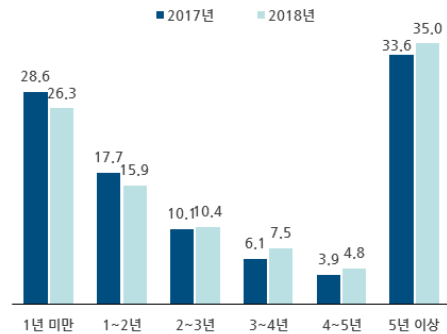
채널로의 변화가 필요함

- 복잡한 설계형 보험상품의 경우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생애설계 중심의 컨설팅형 채널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고아계약 관리시스템은 추가판매(Up-Selling) 등 신계약 창출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기존 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10〉 보험회사의 민원 유형별 비중 〈그림 IV-11〉 생명보험설계사 근속연수별 비중
(단위: %)

구분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부책 결정	기타
	보험모집	계약 성립·해지			
2013	26.5	8.3	27.9	10.5	26.8
2014	24.4	7.6	32.2	9.4	26.3
2015	21.8	8.8	31.4	8.9	29.0
2016	21.9	7.8	29.6	10.4	30.3
2017	19.8	8.3	35.7	11.2	25.0
2018	21.8	8.8	36.1	10.0	23.3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생명보험협회

아. 자율민원조정기구 활성화

- 민원은 1차적으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해결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비율의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음
- 소비자 불만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나 보험회사 내에 중립적인 민원 해결기구를 두고 자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자율민원 조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해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민원 조정기구의 중립성,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손해보험협회는 2017년 6월부터 차대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민원인에게 과실비

을 적용을 설명해주고 판단 의견을 제공하는 '과실비율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 불만 해결에 효과가 컸음

-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과실비율 민원센터'의 조정 후 민원을 취하한 비율은 약 78.7%였음
- 보험회사 내에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현행 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자율적 민원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센터보호위원회나 소비자권익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IV-12〉 자율민원조정기구 현황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민원센터' 사례	보험회사 내 자율 분쟁조정기구
2017년 6월부터 차대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민원인에게 과실비율 적용을 설명해 주고 판단 의견을 제공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과실비율 민원센터'의 조정 후 민원을 취하한 비율은 약 78.7%였음 (손해보험협회)	-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센터보호위원회 (손해보험)나 소비자권익위원회(생명보험) 등의 명칭으로 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 중 - 외부 전문가(소비자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로 구성된 위원회는 매달 4~5건의 민원에 대해 검토, 해결하고 관련 실무부서에도 feedback제공

자. 손해사정제도 개선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대상'으로, 보험회사의 직접고용, 업무위탁, 보험계약자 선임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직접고용 및 업무위탁을 통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독립 손해사정업체의 영세성 및 전문성 미흡으로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보장이 열악한 상황임

- 손해사정의 독립성 제고를 통해 공정성을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보험회사의 자기손해 사정(자회사를 통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독립손해사정업체 정보 공시제도 및 독립손해사정사의 역량 강화 등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13〉 손해사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현 황	검토 사항
• 보험회사의 형식적인 고용-위탁 손해사정사제도 운영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독립성 확보에 어려움 • 고용-위탁중심의 시장 형성으로 독립손해사정사의 영세성 및 접근성 미흡	•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자회사를 통한 업무위탁 등)에 대한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보수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 독립손해사정업체 정보 공시제도 및 독립손해사정사의 역량 강화

차.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

- 자율주행차,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 공유 등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완비되지 않음
 - 사고책임 및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음
-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주체 및 보험가입의무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인데, 사고처리를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접근권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사고 관련 정보 이외에 자율주행차가 생성하는 다양한 정보 대한 접근 및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영국 보험협회(ABI)의 경우 정부에 충돌사고 자동보고시스템(e-Call) 도입, 비 충돌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도입, 자율주행차 사고 시 제조물책임의 결합을 추정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함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제 정비가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 및 공급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독일의 경우 전동킥보드 특별법(eKFV)을 제정하여 전동킥보드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보험회사들은 전동킥보드 전용보험(대인, 대물, 자손 등 담보)을 판매 중임

-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 공유가 확산되고 있어 차량 공유의 특성을 반영한 약관 개정 또는 특약 개발을 통해 보장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영리목적 카풀 중 사고 시 면책 등 차량 공유 시 기존 자동차보험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제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
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금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2019-4 압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 11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 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
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
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
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
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황인창·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
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조사자료집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
이향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연차보고서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제 11 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회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 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저 자 약 력

조영현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ungcho@kiri.or.kr)

김세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최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권오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atie5022@kiri.or.kr)

김유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umi_kim@kiri.or.kr)

최예린

성균관대학교 무역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erinchoi@kiri.or.kr)

연구보고서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20-4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